

11-07 (통권 제 477호)

2011. 2. 22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VIP REPORT



■ 외국인근로자의 근로 실태와 개선을 위한 시사점



現代經濟研究院
HYUNDAI RESEARCH INSTITUTE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원, 장후석, 임상수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241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02-2072-624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외국인근로자의 근로 실태와 개선을 위한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외국인근로자 현황 및 근로 실태	3
3. 외국인근로자 활용의 영향과 문제점	11
4. 시사점	18

■ HRI 경제 지표

22

■ 개요

외국인근로자는 경제적 수입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외국 국적의 근로자를 뜻하며 세계화 및 국내 인적자원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국내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 고학력화·고령화 등에 따라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의 규모 및 비중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효과적인 외국인근로자 활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현황과 영향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 외국인근로자 현황 및 근로 실태

(인구 특성) 국내 외국인근로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 아시아 출신근로자, 20대 후반~30대 초반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한다. 2010년 말 기준 외국인 근로자는 76.8만명을 기록하였다. 성비를 살펴보면 남성 외국인근로자 2009년 기준규모는 여성 외국인근로자의 1.87배 정도이며 이는 2005년의 2.24배보다 하락한 수치다. 출신 국가별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상위 10개국 출신의 외국인근로자가 전체의 9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 20대 후반~30대 초반의 근로자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근로자의 70% 정도가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 인력으로 나타나며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5%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근로 실태) 외국인근로자의 대부분이 단순노동인구로 주로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내국인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더 긴 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재해 및 인권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7년 이후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94%는 단순인력으로 구분되며 주로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는 주로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25~50% 가량 낮은 임금을 받고 20~46% 정도 긴 시간 근무하며 재해율이나 인권피해율도 더 높다.

■ 외국인근로자 활용의 영향과 문제점

(영향)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 기피 업종에 인력을 제공하고 영세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산업에 기여하지만 내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필수적 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우려를 야기한다.

내국인 기피 업종 보완: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은 단순노동직종에서의 인력난을 완화시켜준다. 2008년 제조업과 건설업의 외국인근로자 비중은 각각 6.0%, 9.1%를 기록하였으며 이들이 없었다면 인력부족률은 8.31%, 11.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영세기업의 부담완화: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 대비 7~80% 낮은 임금으로 근로하여 영세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다.

내국인 근로조건 악화: 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내국인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악화시킨다는 응답이 24.7%, 향상시킨다는 응답이 10.3%를 차지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환경을 잘 감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되면서 사업주들이 전체 임금 및 근로환경을 하향평준화하면서 발생한 결과로 판단된다.

필수적 산업 구조조정 지연 우려: 저임금 외국인력 활용이 가능한 경우 영세기업이 값싼 외국인력에 의존하여 투자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소홀히 함에 따라 산업구조조정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점) 외국인근로자의 활용과 관련하여 전문인력의 부족이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학력 미스매치, 사업장 교육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부족한 전문 인력: 국내 외국인 전문인력은 전체 외국인근로자의 5%에 불과하여 그 수가 매우 적고 이마저도 주로 교육서비스 업체에 종사하고 있어 국내 산업 발전과 직접적인 관련은 낮은 편이다. 또한 OECD국가에서는 전문직과 기능직이 고루 분포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볼 때 국내 외국인 전문인력의 풀(pool) 자체가 협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근로자의 학력 미스매치: 사업체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요구하는 학력수준은 고졸이 55%를 차지하는 등 크게 높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이에 비해 국내 유입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부분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자이며 이는 국내 기업들이 외국인 인적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기대수준과 현실의 불일치: 2004-2007년간 고용특례자의 통상임금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희망임금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희망업종과 실제취업업종간의 차이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의 97%가 제조업에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한편, 실제로는 서비스업과 농축산업 등에도 14%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 이처럼 기대수준과 취업현실 간의 갭이 존재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내지는 희망업종에서의 불법 취업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사업장 교육부족: 외국인근로자는 산업재해율 및 인권피해 침해가 높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이나 내국인근로자에 대한 타문화이해교육은 부족한 상황이다. 외국인근로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은 50% 정도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1주 미만의 단기교육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내국인에 대해 외국인근로자의 문화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업체는 50%미만이며 그중 대부분이 부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혀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 시사점

첫째,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산업재해와 인권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 외국인근로자 근절에 더욱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와 기업체는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정부와 기업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만족도 제고 및 외국인 인적 자원의 활용 극대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판단과 효율적인 정책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통계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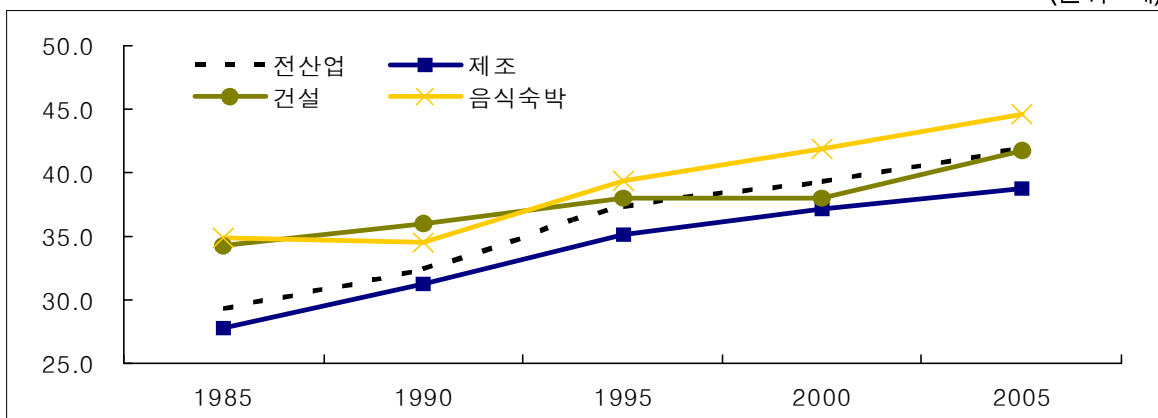
1. 개요

○ (정의) 외국인근로자란 경제적 수입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외국 국적의 근로자를 뜻하며 세계화 및 국내 인적자원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국내 외국인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란 경제적 수입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외국국적의 근로자를 뜻함
 - 외국인근로자는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 이민노동자(immigrant worker), 외국인노동자, 외국인력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림
- 외국인근로자의 증가배경으로는 크게 세계화, 소득수준의 증가 및 고학력화·고령화 등의 인구구조변화를 들 수 있음
 - 세계화로 인적자원의 이동이 용이해지면서 외국인근로자가 증가하게 됨
 - 소득수준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인근국가 근로자들에게 이주의 유인으로 작용함
 - 또한 고학력화·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내국인들이 저임금 단순노동 분야 위주 일부 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이들 업종에서의 외국인근로자 수요가 증가하게 됨

< 생산·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산업별 평균연령의 변화 >

(단위: 세)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및 중장기 관리체계 개선방향 연구', 2007.9.

- 국내에서는 중소기업 등의 인력 부족 호소로 1993년부터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 운영했으며 2004년부터는 고용허가제를 시행해왔음
 - 1980년대 말 국내 소득 수준이 크게 향상되면서 인력부족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음
 - 정부는 1993년부터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 운영해왔으며, 2004년부터 외국인력을 합법적인 근로자로 등록·관리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였음
 - 또한 2007년부터는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방문취업제를 시행하면서 외국국적 동포의 입국이 크게 증가하였음

○ (연구배경)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가운데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현황과 영향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됨

-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는 2000년 28만명에서 2010년 77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
- 향후에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국내 산업의 수요가 지속되고 외국인근로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 아직 국내 외국인근로자 비중은 유럽의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편¹⁾
 - 저출산 고령화, 고학력화는 이른바 3D업종 기피 현상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내 유후인력의 취업유도 등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외국인근로자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하고 국내 산업계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이에 외국인근로자의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인근로자 유입의 영향 및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음
 - 외국인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산업 인력난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등 유입국 산업에 기여함
 - 하지만 불법 체류, 사회적 갈등 심화, 내국인 근로자 근로환경 악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역사가 길어지면서 외국인근로자 본인 및 산업 내부적인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표출될 수 있음
 - 이에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과 영향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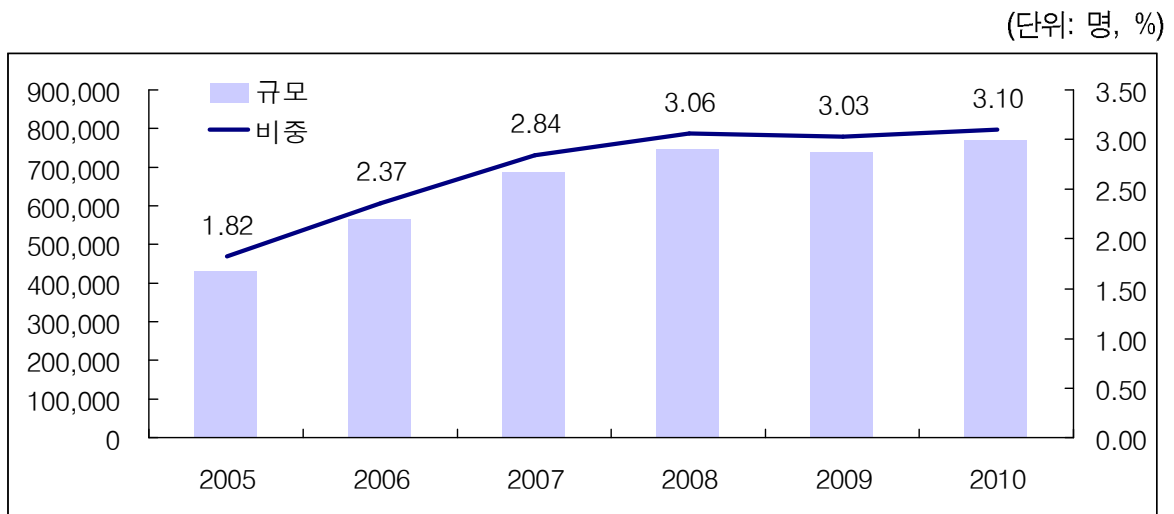
1) 외국인근로자 비중은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나 2006년 현재 총고용인구 중 외국인의 비중은 룩셈부르크 43.8%, 스위스 24.4%, 호주 25.6%, 미국 15.8% 등 인테 반해 국내에서는 2008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84%으로 낮은 편

2. 외국인근로자 현황 및 근로 실태

○ (인구 특성) 국내 외국인근로자는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남성, 아시아 출신근로자, 2~40대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함

- (규모) 2010년 말 기준 외국인근로자²⁾는 76.8만명을 기록하여 2005년에 비해 1.78배 증가하였음
 - 특히 2004년과 2007년 각각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가 실시되면서 2005~2007년간 외국인근로자가 빠르게 증가하였음
 - 다만 2008년과 2009년에는 금융위기를 계기로 실업자가 대량 발생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의 유입도 위축되었음
 - 국내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외국인근로자 비율은 2005년 1.82%에서 2010년 3.10%로 확대되었음

< 국내 외국인근로자 규모 및 비중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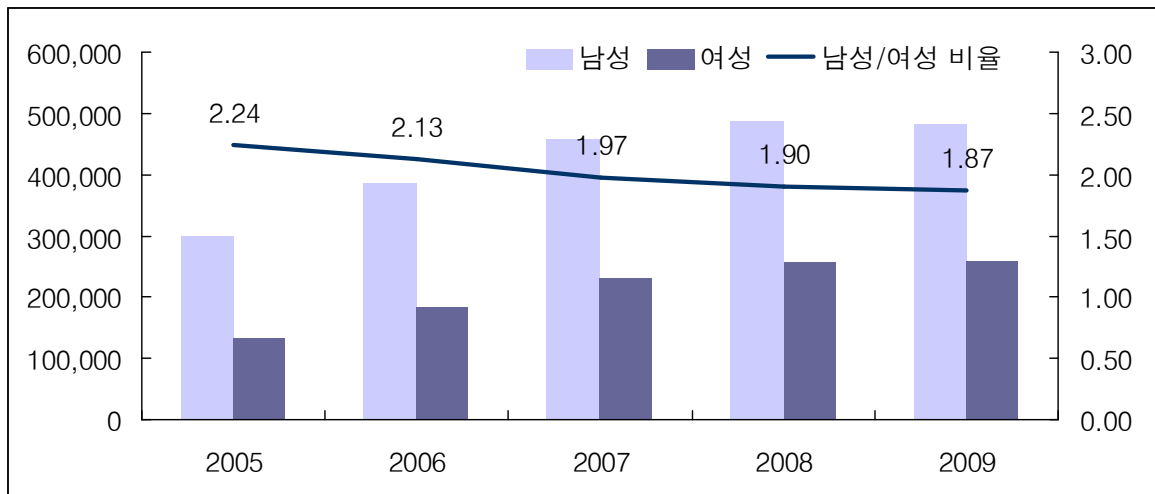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 각년호, '2010년 4분기 통계'

2) 현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이 허가된 체류자격은 취업비자(E), 단기취업(C-4),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사증을 소지한 자로 한정된다. 하지만 모든 거주 외국인이나 영주권자가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것은 아닌 점, 단기 취업 외국인의 경우 국내 인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 실질적으로 많은 외국인이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국내에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외국인근로자 추정 방법에 따라 취업비자(E), 산업연수(D-3), 기업투자연수(D-8), 취업관리(F-14), 방문취업자(H-2), 재외동포(F-4) 및 불법체류자를 외국인근로자로 가정하여 외국인근로자 규모를 추정하였다.

- (성비) 남성 외국인근로자는 여성 외국인근로자의 약 2배 수준
 - 2009년말 현재 남성 외국인근로자 대비 여성 외국인근로자 비율은 1.84
 - 이는 지난 2005년의 2.24 대비 하락한 수치임
 - 남성 대 여성 근로자 비율이 하락한 것은 2007년 방문취업제도 시행을 계기로 가사·음식업에서 선호되는 여성 중국동포가 본격적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국내 외국인근로자 집단의 남녀 성비 >

(단위: 명, %)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 각년호

- (출신국가)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가 아시아 지역 출신으로 출신국가별로 중국, 베트남, 미국 순으로 비중이 높음
 - 2009년 현재 외국인근로자 중 중국출신이 53.9%를 차지하는 가운데 국가별로 베트남 출신이 7.8%, 미국 출신이 6.7%를 차지함
 -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등 국가 출신 외국인근로자 비중이 높은 것은 이들 국가가 고용허가제가 규정하고 있는 송출국가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기인함
 -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영어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외국인근로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풀이됨
 - 전체 외국인로자 가운데 상위 10개국 출신 외국인근로자가 91.8%를 차지함

< 상위 10개국 출신 외국인근로자의 규모와 비중(2009년 기준) >

(단위: 명, %)

	외국인근로자		전체 외국인근로자 중 비중
		불법체류자	
중국	399,102	82,484	53.9
한국계 중국인	328,126	25,156	44.3
일반 중국인	70,976	57,328	9.6
베트남	57,751	14,664	7.8
미국	49,569	4,057	6.7
필리핀	35,073	11,834	4.7
태국	34,570	12,383	4.7
인도네시아	25,910	4,955	3.5
몽골	21,395	12,270	2.9
우즈베키스탄	18,266	7,091	2.5
캐나다	15,019	2,092	2.0
방글라데시	13,795	492	1.9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9 통계연보'.

- (연령) 외국인근로자의 다수가 20대 후반~30대 초반임
 - 비전문취업(E-9)사증으로 국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³⁾,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외국인근로자가 매년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2009년 말 기준 40대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등록외국인 집단⁴⁾과 비교했을 때, 외국인근로자의 연령대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이는 단순 노동과 체력소모가 많은 중소기업에서 젊은 인력을 주로 고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다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전문인력, 고용특례자⁵⁾ 등을 포함하면 실제 외국 인근로자 집단의 평균연령대는 소폭 상승할 것

3) 현재 법무부에서는 등록외국인의 연령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통계로는 외국인근로자를 추정할 수 없어 본 보고서에서는 기 연구보고서에서 분석된 E-9자격 외국인근로자 통계를 인용하였음

4) 2009년 기준 등록외국인 중 20대, 30대, 40대의 비중은 각각 31%, 26%, 19%를 기록하였음

5) 2007년 5월 기준 고용특례자의 평균연령은 45.0세에 달하여 연령대가 높은 측면이 있음

< 연도별 외국인근로자 연령 >

(단위: 명, %, 세)

	2005		2006		2007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25세 미만	2,981	32.9	11,502	20.1	21,161	29.0
25~29세	2,497	27.6	16,660	29.1	20,772	28.4
30~34세	2,451	27.0	15,101	26.3	18,015	24.7
35~39세	1,057	11.7	10,842	18.9	11,013	15.1
40~49세	74	0.8	3,145	5.5	2,017	2.8
50세 이상	1	0.0	74	0.1	58	0.1
평균연령	27.8		30.1		29.7	

자료: 노동부, '고용허가제 1주년 기념 세미나', 2005, '외국인고용허가제시행 3주년 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7, 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및 중장기 관리체계 개선 방향 연구', 2007.

- (학력) 2009년 기준 외국인근로자의 대다수가 전문대 또는 대학 재학 이상의 고학력 인력인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근로자의 학력을 살펴보면 2005년 중졸이하는 12.5%, 고졸은 61.9%, (전문)대졸 이상도 25.6%를 차지하였으며,
 - 2009년에는 학력 수준이 더욱 높아져 중졸 이하는 6.0%에 불과한 반면 (전문)대 이상은 70.5%에 달하였음

< 외국인근로자의 학력 >

(%)

	2005	2007	2009
중졸 이하	12.5	26.4	6.0
고졸	61.9	40.0	23.4
(전문)대졸 이상	25.6	33.6	7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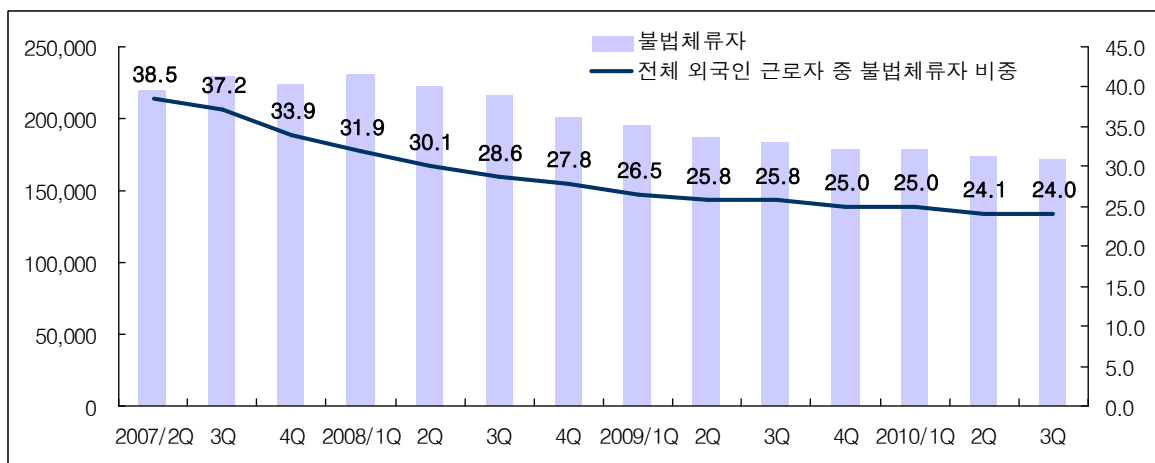
자료: 유승균, '외국인근로자의 이문화적응에 관한 연구, 2010, '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과 국내 근로자 임금격차 분석', 2010, 노동부, '외국인고용허가제시행 3주년 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2007.10.

- (법적지위) 국내 불법체류자는 2010년 3분기 17만명으로 전체 외국인근로자의 24%를 차지함

- 이는 2007년 2분기 불법체류자 22만명 대비 22.2% 하락한 수치임
- 불법체류자가 감소하면서 전체 외국인근로자 중 불법체류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38.5%에서 14.5%p 하락하였음
- 불법체류자의 감소는 국가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더 많은 근로자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 불법체류자 규모 추이 >

(단위: 명, %)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분기별 통계'.

○ (근로 실태) 국내 산업에서 외국인근로자의 대부분이 단순노동인구로 주로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내국인에 비해 낮은 임금, 긴 노동시간, 높은 산업재해 및 인권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력분포) 주로 단순노동 외국인근로자가 다수를 차지
 - 2010년 현재 전체 외국인근로자 중 단순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94.3%를 기록하였음
 - 반면 전체 외국인근로자 중 전문인력⁶⁾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대를 유지하고 있음
 - 이는 외국인근로자 유입문인 고용허가제가 단순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위주로 외국인근로자 모집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

6) 전문인력은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활동(E-6), 특정활동(E-7)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을 지칭하며, 본 연구에서는 체류인력을 기준으로 집계하였음.

< 연도별 전문인력 및 단순인력 비중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문인력	5.8	5.2	4.9	5.0	5.5	5.7
단순인력	94.2	94.8	95.1	95.0	94.5	9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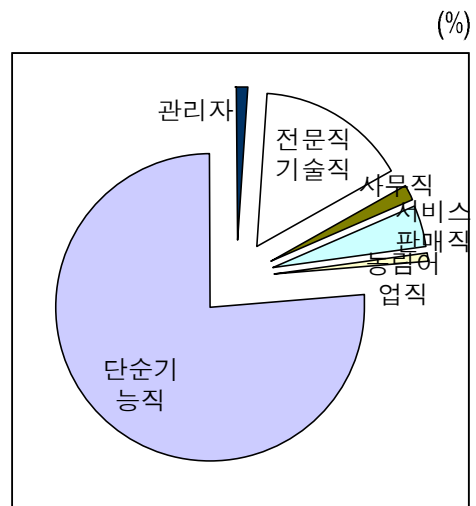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 각년호, '2010년 4분기 통계'

- (업종 및 직종분포)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제조업에서 단순기능직으로 근무하고 있음
 - 2010년 기준 일반 고용허가제 하에서 외국인근로자의 82.9%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축산업, 건설업 순으로 종사
 - 고용특례자의 경우, 제조업 종사율이 53.0%, 서비스업 종사율이 45.3% 등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제조업 외 업종에서의 종사율이 높음
 - 취업직종을 살펴보면 외국인근로자의 76.3%가 기능원, 단순노무종사자 또는 장치기계 조작종사자 등 단순기능직으로 구분됨

< 외국인근로자의 업종 분포 >

		2008	2009	2010
일반 고용 허가	농축산업	6.0	3.7	7.8
	제조업	87.8	87.4	82.9
	건설업	4.4	6.8	6.2
	서비스업	0.1	0.1	0.1
	어업	1.7	2.0	3.0
특례 고용 허가	농축산업	2.1	0.8	1.0
	제조업	33.1	30.7	53.0
	건설업	19.7	6.8	0.5
	서비스업	44.7	61.4	45.3
	어업	0.3	0.2	0.3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직종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과 국내 근로자 임금격차 분석', 2010, 한국고용정보원,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동향', 2010., 노동부, '외국인고용허가제시행 3주년 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2007.10.

- (근로 사업장 규모) 외국인근로자는 주로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음
 - 2008년 기준 5-9인, 10-29인, 30-99인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비중은 각각 23.5%, 39.6%, 25.3%로 전체 외국인근로자의 88.3%를 차지함
 - 이는 2004년 100인 이하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비중인 84.5%에 비해 증가한 수치

< 외국인근로자 취업 사업체의 규모별 분포 >

	2004	2005	2006	2007	2008.10 (%)
5-9인	22.1	15.8	24.1	21.8	23.5
10-29인	33.6	33.3	32.8	35.1	39.6
30-99인	28.8	32.1	27.1	28.0	25.3
100-299인	10.2	12.0	10.4	10.4	7.8
300인 이상	5.3	6.7	5.6	4.7	3.9
합계	100.0	99.9	100.0	100.0	100.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외국인력 수요분석 및 활용방안'. 2009.

- (임금과 노동시간)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더 긴 시간 동안 일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45.9만원으로 정규직 내국인보다는 적고 비정규직 내국인 노동자보다는 많음
 - 하지만 외국인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34.9시간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내국인에 비해 각각 19%, 46% 더 김
 - 이에 따라 외국인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0.72만원으로 정규직 및 비정규직 내국인에 비해 낮은 수준임
 -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전적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국인 근로자 대비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인 측면도 있음)

7) 국내 근로자 대비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약 87% 수준(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및 중장기 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 2007)

< 고용형태별 임금 및 근로시간 >

(단위: 만원, 시간)

	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월평균 임금	271.9	127.2	145.9
월평균 근로시간	196.8	160.7	234.9
시간당 평균임금	1.46	0.97	0.72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과 국내 근로자 임금격차 분석', 2010.

- (산업재해 및 인권피해)외국인근로자는 재해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인권침해 피해 우려도 높음
 - 2006년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율은 1.06%로 내국인 근로자의 0.77% 보다 높음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산업 재해에 대응하여 도움을 요청할 만한 기관을 잘 모르거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소통 및 법적지식 부재, 불법체류자 신분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재해율은 더 높을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외국인근로자 조사에 따르면 언어적 폭행, 여권압류, 신체적 폭행 등 인권침해 피해를 당한 외국인근로자의 비율이 33.4%에 달하고 있음⁸⁾

<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 >

(단위: 명, 건, %)

	2004		2005		2006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인원수	292,197	10,180,893	279,227	10,779,986	322,231	11,366,566
부상	2,617	75,897	2,403	74,115	3,226	75,117
부상률	0.90	0.75	0.60	0.69	1.00	0.66
질병	33	7,862	40	6,360	86	9,028
발병률	0.011	0.077	0.014	0.059	0.027	0.079
부상,질병으로 인한 사망	74	2,751	74	2,419	95	2,358
총산업재해	2,724	86,150	2,517	82,894	3,407	86,503
총산업재해율	0.93	0.85	0.90	0.77	1.06	0.77

자료: 이선웅 외, '이주노동자와 국내 한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현황 및 특성 비교', 2008.

8) 노동부, '외국인고용허가제시행 3주년 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2007.10.

3. 외국인근로자 활용의 영향과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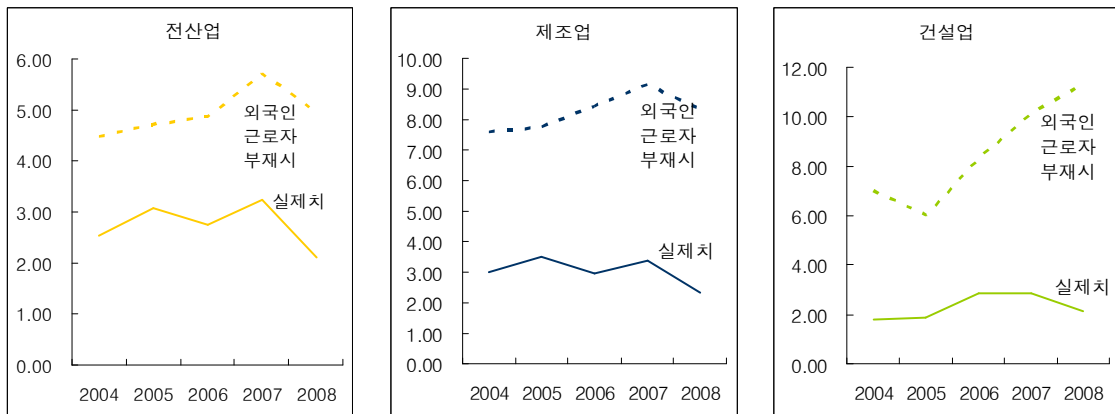
(1) 외국인근로자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 (긍정적 영향) 외국인근로자는 단순노동 등 내국인 기피 업종에 인력을 제공하고 영세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도모하여 국내 산업에 기여함

- (내국인 기피 업종 보완) 외국인근로자들이 유입되면서 단순노동직종에서의 인력난이 완화됨
 - 내국인들이 제조업, 건설업 등 저임금 단순노동 업종을 기피하게 되면서 이들 업종으로의 외국인근로자 취업이 증가하였음
 - 이에 따라 제조업에서 외국인근로자의 비중은 2004년 말 4.32%에서 2008년 상반기 기준 6.0%까지 증가하였으며 특히 건설업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비중이 9.1%에 달하고 있음
 - 덕분에 2008년 기준 전산업, 제조업, 건설업의 인력부족률은 2.11%, 2.31%, 2.14%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짐

< 업종별 인력부족률 비교 >

(%)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외국인력의 현황과 정책과제', 2009.5, 노동부, '사업체고용동향조사', 각년호.

주: 실제 인력부족률은 (부족인원/현인원*100)으로 산출된 수치이며 외국인근로자 부재시 인력 부족률은 실제 인력부족률에 업종별 외국인근로자 비중을 더한 수치임.

외국인근로자의 근로 실태와 개선을 위한 시사점

- (영세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 대비 7~80% 낮은 임금으로 근로함에 따라 영세사업체의 비용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음
 - 2007년 기준 외국인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0.72만원으로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보다 낮음
 -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외국인근로자는 비용부담에 시달리는 영세기업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공함⁹⁾
 -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100인 이하 사업체의 비중은 2004년 84.5%에서 2009년 88.4%로 증가하였고, 이 가운데 10-29인 사업장의 비중이 33.6%에서 39.6%로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음

○ (부정적 영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은 내국인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필수적 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위험이 있음

- (내국인 근로조건 악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은 내국인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 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내국인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악화시킨다는 응답이 24.7%, 향상시킨다는 응답이 10.3%를 차지함
 - 이는 내국인 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으로 근로하는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환경을 잘 감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되면서 사업주들이 전체 임금 및 근로환경을 하향평준화하면서 발생한 결과로 유추할 수 있음

<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내국인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 >

(%)

	전체	경공업	중공업	건설업	음식업	1-9인	10-29인	30인+
크게 악화시켰음	6.7	4.4	4.5	20.0	2.0	5.9	7.3	6.8
다소 악화시켰음	18.0	16.2	17.4	20.0	20.0	15.1	20.4	18.2
거의 영향 없음	65.0	70.6	66.7	58.0	60.0	63.9	63.5	72.7
다소 향상시켰음	9.3	8.8	10.6	2.0	14.0	12.6	8.8	2.3
크게 향상시켰음	1.0	0.0	0.8	0.0	4.0	2.5	0.0	0.0

자료: 노동부, '외국인고용허가제시행 3주년 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2007.10.

9) 고용주들이 외국인력을 사용하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목적은 노동비용 감축이며 기타 이유로는 탄력적 인력 운용, 내국인 근로자 부족 등을 들 수 있음

- (필수산업구조조정 지연 우려) 영세기업이 저임금의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면서 투자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소홀히 함에 따라 필수적인 산업 구조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 현대 국가와 기업은 급변하는 경제사회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는 개혁과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저임금 외국인력 활용이 가능한 경우 수입국의 경쟁력이 없는 사양산업이 값싼 외국인력에 의존하여 연명할 우려가 있고,
 - 사양산업은 아니더라도 고용주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나 구조조정을 게을리 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음
 -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의 고부가가치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산업구조의 조정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음

(2) 외국인근로자 활용의 문제점

- 외국인근로자 활용과 관련하여 전문인력 부족 등이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외국인근로자 학력의 미스매치, 사업장 교육부족 등이 문제로 제기됨
- (부족한 전문인력) 국내 전문인력은 그 수가 매우 적고 국내 산업 발전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은 아님
 - 국내 유입되는 전문인력은 전체 외국인근로자의 5%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주로 교육서비스 업계에 종사하고 있음
 - 외국인력 고용 사업체 중 교육서비스 분야가 10.7%를 차지하여 제조업(76.2%) 다음으로 많은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으며,
 - 2010년 기준 전문인력의 53.5%가 회화지도 자격으로 입국하고 있어 전문인력의 다수가 영어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함을 유추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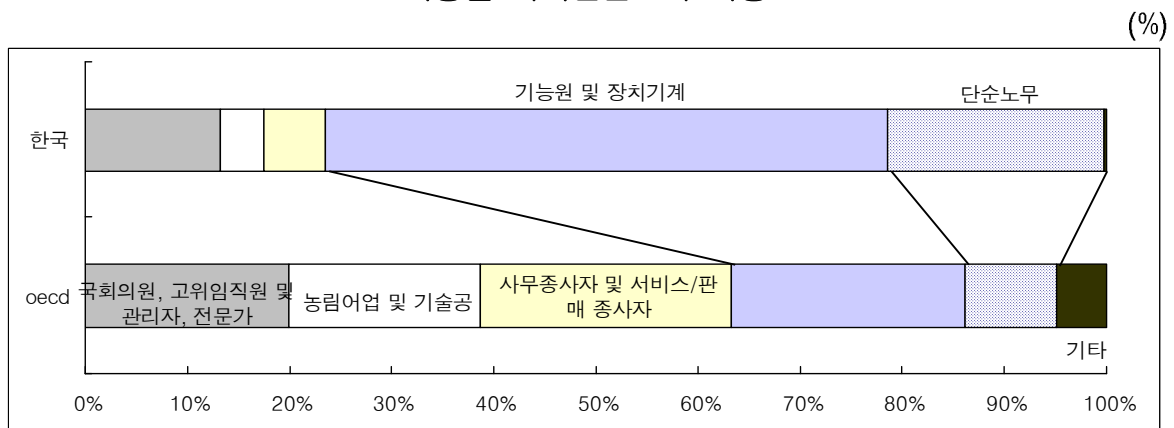
< 외국인 전문인력의 유형별 비중 >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흥행	특정활동
2005	4.4	50.3	7.1	0.8	1.2	17.8	18.3
2006	4.0	51.8	7.2	0.6	1.2	15.3	19.8
2007	3.8	53.0	6.9	0.5	1.2	13.0	21.5
2008	4.3	53.2	5.5	0.3	1.4	12.7	22.6
2009	5.1	55.8	5.1	0.5	1.3	10.3	21.9
2010	5.2	53.5	5.3	0.5	1.4	9.5	24.6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 각년호, '2010년 4분기 통계'

- 반면 OECD국가에서는 전문직과 기능직이 고루 분포하고 있어 국내 외국인 전문인력의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나라별로 차이는 있으나 OECD국가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중 기능원, 장치기계, 단순노무 직종 외국인근로자는 전체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며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준전문가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비중도 30%에 달함
 - 이처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자국 산업의 경쟁력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전문직 외국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바 있음
 - 이는 기능원, 장치기계, 단순노무 직종 외국인근로자가 전체 외국인근로자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국내 상황과는 대조적임

< 직종별 외국인근로자 비중 >



자료: OECD, 'Data on Immigrants in OECD Countries', 한국고용정보원, '외국인력 수요분석 및 활용방안', 2009.11

○ (외국인근로자의 학력 미스매치) 외국인근로자의 학력은 사업체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높은 상황이며 이는 국내 기업들이 외국인 인적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됨

-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체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높은 학력을 지니고 있음
 - 사업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2007년 기준), 사업체가 외국인근로자에 요구하는 학력수준은 중졸 이하가 16.3%, 고졸이 55.0%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무관하다는 의견도 24.7%에 달하여 사업체가 요구하는 학력 수준은 높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됨
 - 하지만 2009년 외국인근로자의 70.5%가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자로, 사업체 요구수준에 비해 외국인근로자의 학력이 높은 측면이 있음¹⁰⁾

< 외국인근로자의 학력과 사업체의 요구 학력 비교 >

	외국인근로자의 학력			사업체 요구 학력 (2007년 기준)
	2005	2007	2009	
중졸 이하	12.5	26.4	6.0	16.3
고졸	61.9	40.0	23.4	55.0
(전문)대졸 이상	25.6	33.6	70.5	4.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과 국내 근로자 임금격차 분석', 2010.
 주: 학력이 무관하다고 응답한 사업체의 비중은 24.7%.

- 한편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단순노동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을 비취볼 때 국내 기업들이 외국인 인적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됨
 - 고학력의 외국인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의 대부분이 단순노동에 머무르고 있음
 - 이는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능력에 비해 낮은 수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함

○ (기대수준과 현실의 불일치) 외국인근로자의 임금과 종사업종 측면에서 기대수준과 실제 취업 현실 간의 차이가 발견되며 이에 따라 생산성 하락 및 사업장 이탈 등의 우려가 제기됨

10) 일반적으로도 해외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이주근로자는 동종 직무에 종사하는 해당 국가 출신 근로자보다 교육 수준이 높다는 것이 중론임(OECD)

외국인근로자의 근로 실태와 개선을 위한 시사점

- 고용특례자¹¹⁾를 대상으로 조사 결과,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통상임금이 희망 임금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음
 -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통상임금은 139만원에서 94만원으로 32.7%가 감소한 한편, 희망임금은 130만원에서 118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소폭 감소하였음
 - 이에 따라 통상임금이 희망임금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났음
- 일반고용 및 특례고용허가제에서 희망업종과 실제 취업업종간의 불일치 현상이 발견됨
 - 일반고용허가제도로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의 97.5%가 제조업 종사를 희망하며, 고용특례자의 경우 46.4%가 건설업에, 38.6%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하지만 실제 업종별 고용현황에 따르면 일반고용허가제로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의 제조업종사율은 2004년 98.6%에서 2010년 82.9%로 감소하여 희망 제조업 종사비율인 97.5%보다 낮은 수준임
 - 같은 기간 고용특례자의 건설업 종사비율은 64.0%에서 0.5%로 급감하여 희망 건설업 종사비율인 46.4%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임

< 외국인근로자의 업종 분포와 희망업종 >

(%)

		업종 분포							희망업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일반 고용 허가	농축산업	1.4	1.3	2.4	6.8	6.0	3.7	7.8	2.1
	제조업	98.6	98.3	97.3	89.6	87.8	87.4	82.9	97.5
	건설업	0.0	0.3	0.1	2.2	4.4	6.8	6.2	0.2
	서비스업	0.0	0.1	0.2	0.1	0.1	0.1	0.1	0.1
	어업	0.0	0.0	0.0	1.2	1.7	2.0	3.0	0.0
특례 고용 허가	농축산업	0.0	0.0	1.1	1.9	2.1	0.8	1.0	0.8
	제조업	0.0	0.0	18.8	26.9	33.1	30.7	53.0	14.2
	건설업	64.0	62.7	41.4	22.4	19.7	6.8	0.5	46.4
	서비스업	36.0	37.3	38.7	48.5	44.7	61.4	45.3	38.6
	어업	0.0	0.0	0.0	0.3	0.3	0.2	0.3	0.0

자료: 노동부, '외국인고용허가제시행 3주년 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2007.10., 한국고용정보원,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동향', 2010.

주: 희망업종은 2007년 기준.

11) 특례고용허가로 근로하고 있는 외국국적의 동포 근로자

- 이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감소시키고 사업장 이탈 및 희망업종에서의 불법 취업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됨
 - 고용특례자의 통상임금이 희망임금보다 크게 낮아지면서 고용특례자의 국내 근로 유인을 감소시켜 고용특례자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서비스업 인력난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 또한 이미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고용특례자는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 사업장변경을 더 자주 신청하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부추길 수 있음¹²⁾
 - 마찬가지로 희망업종에 종사할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 의욕이 떨어져 사업장 내에서 생산성 하락 및 사업장 이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장 교육부족) 외국인근로자는 산업재해를 및 인권피해 침해가 높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이나 내국인근로자에 대한 타문화이해교육은 부족한 상황

-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산업재해 우려가 높아 철저한 교육훈련이 요구되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극히 제한적
 -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에 필요한 기술이나 기능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경공업의 경우 2~6개월 가량 걸리는 것으로 조사되며 건설업은 6개월 이상 걸린다고 응답한 비율도 46.0%에 달함
 - 즉, 외국인근로자의 빠른 적응을 지원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에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하지만 외국인근로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은 50% 정도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1주 미만의 단기교육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적응을 위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의 외국인근로자 이해도 제고가 필수적이거나 이에 대한 교육은 부족한 상황
 - 내국인 근로자가 동료 외국인근로자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적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12)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68.9%가 근로계약 기간 중 외국인근로자의 이직경험이 있으며 이직의 주된 원인(50.6%)으로는 임금을 더 받기 위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 2010.11.23)

외국인근로자의 근로 실태와 개선을 위한 시사점

- 하지만 내국인에 대해 외국인근로자의 문화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업체는 50%미만이며 그중 대부분이 부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혀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체의 외국인근로자 교육훈련 및 내국인 문화교육 제공 비율 >

		외국인근로자 교육		(%) 내국인에 대한 송출국 문화이해 교육
교육여부		54.3		
교육기간	3일 미만	23.9	정기적으로 실시	5.3
	1~7일	27.6	부정기적으로 실시	40.7
	1~2주	19.0		
	2~4주	11.7	전혀 실시 않음	54.0
	4주 이상	17.8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과 국내 근로자 임금격차 분석', 2010, 노동부,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 3주년 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2007.10

주: 교육기간은 외국인근로자에 교육훈련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 시사점

첫째,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불법 외국인근로자 근절에 더욱 힘써야 한다.

- 외국인근로자는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단순노동력의 원천으로만 치부되어 인권이 무시당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됨
- 산업재해 시 외국인근로자에 적합한 치료와 보상을 제공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야함
 - 불법체류외국인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체류자를 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한편,
 - 국내 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부여하거나 자진귀국을 유도하는 전략을 강화하여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를 줄여야함

둘째, 정부와 기업체는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내국인의 임금 및 근로환경 악화를 방지하여 국내 산업 경쟁력을 도모해야 함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기업체에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환경 유지 또는 개선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강화하여 산업재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에 힘쓸 필요가 있음

셋째, 정부와 사업체 모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정부는 국민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 수립 시 다각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성공적인 국내 사회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다문화시대의 초석을 마련
- 더불어 기업체는 생산성 증진 차원에서 외국인과 내국인 근로자가 협동적으로 근로할 수 있게끔 업무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넷째, 정부와 기업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만족도 제고 및 외국인 인적 자원의 활용 극대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선발에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선호도 및 사업체가 요구하는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업체의 요구수준에 부합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선발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근

- 로의욕을 고취시키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함
- 또한 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에 한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고용허가 제도를 아프리카 및 남미 등의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더불어 국내 산업 발전에 도모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유치 방안 및 지원 제도 등을 강화해야 함
- 또한 기업은 고학력의 외국인근로자를 단순노동업무에 투입하는데 벗어나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섯째, 외국인근로자 통계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 국내 경제·산업의 외국인근로자 의존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통계는 구축 중에 있음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도 없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통계 구축을 서두를 필요가 있음 **HRI**

전혜영 연구원 (02-2072-6241, haloween@hri.co.kr)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구 분		2008	2009 ^P	2010 ^P					2011 ^E	
				1/4	2/4	3/4	4/4	연간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2.3	0.2	8.1	7.2	4.4	4.8	6.1	4.3	
	민간소비 (%)	1.3	0.2	6.3	3.7	3.3	3.2	4.1	3.8	
	건설투자 (%)	-2.8	4.4	2.3	-2.9	-2.3	-4.7	-2.3	1.5	
	설비투자 (%)	-1.0	-9.1	29.9	30.2	24.3	16.0	24.5	8.5	
대 외 거 래	경상수지 (억 \$)	32	328	3	89	99	92	282	197	
	통 관 기 준	무역수지 (억 \$)	-133	426	30	145	114	128	417	304
		수출 (억 \$)	4,220	3,635	1,011	1,203	1,171	1,289	4,674	5,168
		증감률 (%)	(13.6)	(-13.9)	(35.8)	(33.1)	(23.6)	(24.0)	(28.6)	(10.8)
		수입 (억 \$)	4,353	3,231	981	1,057	1,507	1,161	4,257	4,864
		증감률 (%)	(22.0)	(-25.8)	(37.4)	(43.0)	(24.6)	(25.1)	(31.8)	(14.4)
소비자물가 상승률 (%)	4.7	2.8	2.7	2.6	2.9	3.6	2.9	3.0		
실업률 (%)	3.2	3.6	4.7	3.5	3.5	3.3	3.7	3.5		
국제유가 (평균, Dubai, \$/배럴)	94	62	76	78	74	82	78	88.7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3	1,276	1,143	1,165	1,184	1,132	1,156	1,090		

주: P(Preliminary)는 잠정실적치, E(Expectation)는 전망치.